

특별기획_‘나’를 변화시키는 『어린 왕자』 인문 여행

『어린 왕자』의 문학 세계

송태효 어린왕자 인문학당 대표

공동의 공간

300번째 언어인 아랍어 방언 하사냐어(Hassanya)로 번역된 『어린 왕자』는 누구에게나 친근하게 다가가는 빈센트의 회화처럼 국적과 종족, 신분과 계층, 아동과 성인의 경계를 넘어 독자들을 함께함의 길로 인도하고 있다. 어린 왕자의 호기심, 비행사의 긴장감, 장미의 간절함이 어우러진 이 동화 아닌 동화는 별에서 온 낯선 어린 친구를 반김의 시선으로 맞이하는 비행사와 여우, 꽃과 뱀의 공동의 공간을 열어 보이며 카뮈의 『이방인(L'Étranger)』과 더불어 우리 시대의 대표적인 프랑스 고전으로 자리매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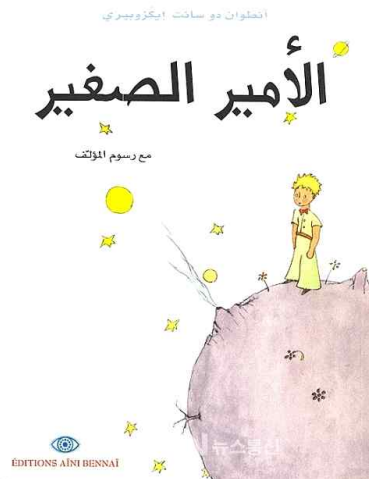


그림 1 300번째 언어인 아랍어 방언 하사냐어(Hassanya)로 번역된 '어린 왕자'

친구도 사귀고 견문도 넓힐 겸 소행성 B612 주변의 여섯별을 유람하고 지구를 방문한 어린 왕자의 여정은 이방인과 현지인, 동물과 인간이 서로에게 길드는 과정이었다. 길들임은 자신의 욕구로부터 벗어남이요, 우정은 타자에 대해 책임지는 것이며, 자기완성은 자기중심주의에서 벗어나는 것임을 깨달은 어린 왕자. 장미가 자신을 길들였음을 알고 그는 뱀의 도움으로 죽음을 선택하여 꺾데기에 지나지 않는 욕신의 허울을 벗어던지고 큰 두려움 속에 귀환 길에 오른다. 실제로 생텍스는 전투 조종사로서는 너무 늙어 악화된 건강에도 불구하고 정찰 비행 임무를 수행하던 1944년 7월 31일 지중해 상공에서 미국의 쌍발 전투기 P-38 라이트닝과 함

깨 장렬한 최후를 맞는다. 어린 왕자처럼 육신의 죽음을 통해 정신으로 부활한 생텍스의 문학과 삶은 공동의 공간을 파괴하는 모든 것에 대항하는 싸움이고 그의 문학 세계는 만인을 위해 치루는 전투 일지였다. 생텍스는 관료주의에 대한 투쟁, 군국주의 나치즘에 대한 투쟁, 온갖 위선에 대한 투쟁을 자기 자신으로 여겼다.



그림 2 생텍쥐페리가 마지막으로 탑승한 쌍발 전투기 P-38 라이트닝

생텍스의 마음에는 이미 제2차 세계대전 발발 이전에도 사막의 혹독한 시련을 통해 만난 어린 왕자가 살고 있었다. 그리고 사활이 걸린 긴박한 전투 경험에서 동료들의 죽음과 직면하여 애초부터 자신의 의지에서 벗어나 있는 행위들의 의미를 깨닫게 된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자아중심주의는 자신의 몸에 사로잡혀 몸을 더 중시해 온 사람들의 착각임을 간파하였다. 그는 몸과 행동이 다르며, 몸은 끊임없이 교체되어가고 있으며, 결국 자신을 벗어나 타인들과의 관계 맺음으로 존재의 의미를 획득하게 된다고 확신하게 되었다. 그리고 자신을 파괴하면서 자신의 문학을 실현해 갔다. 자신과 인간과의 관계 그리고 자신과 세계와의 관계를 철저히 인지하고 살아가는 영웅으로서 그가 창조해 낸 것은 관계의 매듭으로 이루어진 인간의 공간 즉 人-間(사람-사이)라는 공동의 공간이었다. 공동의 공간은 사람을 하나로 묶어 주는 사람(人)-사이(間)로서의 진실을 조건으로 하는 시의 공간이기도 하다.

문학이란 무엇보다도 공동의 공간이다. 공동의 공간은 곧 공동체 정신의 영역으로서 문학에 종사하는 모든 이들의 귀감이 되는 탈자아의 공간이다. 자신의 고유함을 고집하지 않고 감시가 아닌 반김의 시선으로 낯섬을 맞이하는 공동의 공간이 바로 생텍스의 문학의 공간이다. 그는 공동체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며 죽음에 이르렀고 죽음을 통해 자신의 유한성을 구원받았다.

우리라는 것을 넘어서 있는 어떤 공동의 목적에 의해 형제들과 연결되어 있을 때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숨 쉬는 것이다. 그리고 경험상 우리는 사랑한다는 것이 우리 서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함께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것임을 잘 알고 있다. 재회의 공간으로서의 동일한 봉우리로 이어지는 동일한 로프에 연결되어 있을 때만 동료들이 존재한다.”

— 앙투안 드 생텍쥐페리, 『사람들의 땅(Terre des Hommes)』, 송태효역, 고대출판부, 2009, 281p.

생텍스는 뱀과 여우와의 대화를 통해 자기중심주의와 인간중심주의에 반대하여 공동의 공간을 마련해주고 있다. 작가는 문학 행위의 주체이기는 하지만 문학의 주인은 아니다. 문학 행위의 주체로서의 생텍스는 『어린 왕자』에서 길들임의 언어를 통해 문학이 열어 보이는 공동의 공간으로 우리를 초대한다. 그러기에 그에게 문학은 인간에게 공동의 공간으로 들어서도록 인도하는 지팡이인 것이다. 아름다움과 진실과 유용함이라는 문학의 영역으로 이끄는 오이디푸스의 지팡이 말이다.

존재와 소유의 공존

자기중심주의에 집착하는 자들의 세계는 당연히 존재의 비밀보다는 소유 문제를 그 근간으로 하고 있다. 굳이 소유에 상반된 것으로서 무소유를 논하지 않는다 해도 그동안 소유 문제는 줄곧 존재 문제와 상치되는 개념으로 제시되어 온 듯하다. 심지어 현대인은 과도한 소유욕으로 소유를 통한 지배 의지와 과시, 부와 풍요의 잘못된 관념에 집착한 나머지 소유의 착란에 이르는 경우도 있다. 소유 문제를 철학적 성찰의 대상으로 삼은 『어린 왕자』는 이 문제를 존재에 대한 성찰을 저해하고 파괴하는 부정적 영역에 국한해 다루지 않는다. 사실 이러한 영역에 한정시켜 소유 문제를 다루는 것은 대립적 이원론의 관념적 산물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생텍쥐페리의 존재론적 사유는 소유 문제에 대한 부정에 기반을 두고 있지 않다. 존재와 소유를 양립할 수 없는, 적대적인 두 개의 문제처럼 제시하는 것은 우리의 오해에 불과할 따름이다. 사실 이러한 우리의 오해에 경종을 울리기도 하듯 생텍쥐페리는 소유 문제를 다루는 그 출발점에서 다음과 같이 자신의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난 꽃을 한 송이 소유하고 있으면서 날마다 물을 줘. 세 개의 화산도 소유하고 있는데 매주 청소를 해주지. 꺼진 화산도 청소하고. 누가 알아. 내가 화산과 꽃을 가지고 있으면 그들에게 이롭지. 하지만 아저씨는 별들에게 이로울 게 없어. - 생텍쥐페리, 『어린 왕자』 제8장 부분.



그림 3어린 왕자의 소유물, 세 화산과 꽃

어린 왕자가 사업가의 소유에 관한 생각을 기이하게 여기는 이유는 ‘거짓’, ‘불의’ 등과 같

은 사회 현상적 이유에서가 아니라 ‘모순’이라는 논리적 이유에서이다. 별을 소유한다고 주장하는 관념적 지리학자는 실존적 관점에서 보면 세계를 소유하려는 사람들 편이다. 생텍스가 소유를 강조하는 것은 소유가 만인에게 유용하기 때문에 소유 문제가 사회 현상적 접근, 윤리적 접근에 선행하는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우리는 바로 프루동이 『소유란 무엇인가?』에서 ‘소유란 있을 수 없는 것이라는 명제의 이유를 열 가지로 제시하는 가운데 첫째 이유로 ‘유용함’의 문제를 근거로 들고 있음에 주목해보자.

생산물은 단지 생산물에 의해서만 구매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경제법의 원리이다. 소유는 오로지 유용함을 생산하는 것이라는 점에 한해서만 옹호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아무것도 생산하지 않게 되는 순간 곧 처단 받아야 하는 것이다.” — 피에르 조셉 프루동(P.-J. Proudhon), 『소유란 무엇인가?(Qu'est-ce que la Propriété? ou recherches sur le principe du droit et du gouvernement)』, 가르니에 플라마리옹(Garnier-Flammarion), 1966, 249p.



그림 4 어린 왕자가 알코올 중독자 수준으로 평가한 사업가

기업가에게는 소유가 타인과는 무관한 자신의 만족과 관련한 현상이지만 어린 왕자에게는 소유가 대상의 이로움을 위한 행위이다. 다시 말해 소유 역시 하나의 관계 맺음으로 그 본질은 주체의 참여로서 책임에 있다.

사물과의 만남은 소유 차원보다는 존재 차원에서 이루어진다. 사물과의 만남은 존재들에 대한 주체의 참여이기 때문이다. 대상을 소유하는 것은 우선 대상을 책임지는 것이다. — 장루이 마조르(Jean-Louis Major), 『생텍쥐페리의 실존적 변증법(Dialectique existentielle de Saint-Exupéry)』, 오타와 대학 철학 박사 학위 논문, 65p.

우리에게 소유는 근원적 문제이다. 그러기에 소유의 기능이 소유 현상에 선행한다. 소유는 빈부 현상에 선행하는 것 즉 본질적인 문제이지만 자칫 현상의 수치에 매달리기 쉽다. “그럼 그 별들을 소유해서 뭐해?”라고 어린 왕자가 묻는 말에 지리학자는 “나를 부자로 만들지.”라

고 답한다. 다시 어린 왕자가 “부자 되면 뭐해?”라고 물으니 “다른 별들이 발견되면 그걸 사는 데 쓰지.”라고 자신의 착실함을 강조한다. 그는 주인 없는 다이아몬드를 발견한 사람이 그 소유자가 되는 것이라며 소유의 근거를 남들보다 먼저 생각하고 본 사실에 둔다. 어린 왕자는 이러한 지리학자를 알코올 중독자 수준으로 평가하고 다음과 같이 말한다.

“난 머플러를 가지고 그걸 내 목에 두르고 다닐 수 있어. 또 한 송이 꽃을 가지고 있을 때는 내 꽃을 따서 지니고 다닐 수도 있고. 하지만 아저씨는 별을 딸 수 없잖아!”

“그렇지. 하지만 은행에 맡길 수 있지.”

“그게 무슨 말이야.”

“작은 종이에 내 별들의 숫자를 적어 서랍에 넣고 잠가 버리지.” — 생텍쥐페리, 『어린 왕자』 제8장 부분.

어린 왕자는 타인을 비난하지 않는다. 이러한 지리학자의 대답을 듣고 재미있어하면서 오히려 꽤 시적인 일로 여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시적인 일을 그리 중요한 일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이다. 어린 왕자는 중요한 일에 대해서 우리와 매우 다른 생각을 지니고 있다. 예를 들어 누구나 자기 입장에서 별을 바라보고 중요하게 생각한다. 여행자에게 별은 길잡이이고, 또 어떤 이에게는 그저 작은 불빛이며, 학자에게는 연구 대상이고. 사업가에게는 돈이지만 이런 별들은 침묵하고 있다. 하지만 친구가 되는 어린 왕자가 사는 별을 바라보면 상황이 달라진다.

“아저씨가 밤에 하늘을 바라보게 되면, 내가 그 어느 별에서 살고 있으니까, 그 어느 별에서 웃고 있으니까. 아저씨에게는 모든 별이 웃고 있는 것처럼 보일 거야. 아저씨 웃을 줄 아는 별들을 가지게 되는 셈이지!” — 생텍쥐페리, 『어린 왕자』 제26장 부분.

소유의 척도로서 숫자를 중시하고 소유의 착란에 빠진 경우 가장 슬픈 결과는 친구의 수는 늘어나지만 정작 친구가 없다는 것이다. 우리는 친구의 배신을 탓하고 후회하기도 하고 친구를 잊고 살아가면서 자책하기도 한다. 하지만 생텍쥐페리는 “친구를 잊는다는 것은 슬픈 일이다. 누구에게나 친구가 있던 것은 아니다.”라고 말한다. 그런데 작가 자신도 이미 숫자에만 관심을 보이는 어른이 되어버렸다. 어른들은 모든 것을 소유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우정은 소유의 대상이 아니다. 우리는 돈으로 무엇이든 쉽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친구를 살 수도 소유할 수도 없다. 친구는 인내의 산물이지만 우리는 인내심을 잃어버린 것이다. 인간의 정신 활동은 우애와 우정의 산물임을 카뮈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경직된 얼굴들, 위협받는 우애, 사람들 사이로 존재하는 그토록 강렬하고 경건한 우정, 이런 것들이야말로 곧 사라져 가는 것이기에 진정한 부인 것이다. 이러한 것들 한복판에서 정신은 그 힘과 한계를 느낀다. 다시 말해서 정신의 효력 말이다. — 알베르 카뮈, 『시지프 신화(le mythe de Sisyphe)』, 폴리오 에세, 2013, 122p.

자기 초월의 세계

모든 위대한 철학자들처럼 생텍쥐페리는 유일한 문제로서 의식의 각성에 의해 철학적 성찰

에 이른다. 고독과 의식들의 소통이 그것이다. 어린 왕자는 장미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였고, 비행사도 어린 왕자와 마음으로 소통하지 못하였다. 왕, 알코올 중독자, 허영장이, 비즈니스맨, 가로등지기과 어린 왕자는 모두 자신의 별에 홀로 사는 고독한 존재들이다. 어린 왕자와 비행사의 대화는 자아로부터 벗어나고 나와 남이 융화되어 우리가 되는 과정이다. 라캉의 경우처럼 인간은 '내가 아닌 것'을 '나'로 '가정'하며 '나'를 형성하는 트라우마로 삶을 시작한다. '나'의 원점은 '나의 내부'에 없으며 심지어 데카르트와 정반대로 나는 내가 없는 곳에서 생각하게 된다. 인간은 사실상 자신에 관해 무지하며 심지어 자신 속 무엇이 자신을 생각하게 하고, 말하게 하고, 행동하게 하고, 사랑하게 하는지조차 모르면서 자신에 몰입한다. 그래서 랭보는 더욱 본원적으로 "나는 남이다('I' is another)." (폴 드므니에게 보낸 편지, 1871)라고까지 하지 않았던가. 인간의 고결함은 바로 자기를 벗어나 우리를 이루어가는 모습에 있다. 생텍쥐페리는 흔히 말하는 우리라는 개념조차도 벗어나 타인과 연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때 인간은 존재하는 것이다.

소유의 현존을 중시하는 물신 사회에서의 인간의 순응주의, 나약함, 자포자기, 이기심 그리고 천박함과 타락을 비난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 소위 참여문학이나 실천문학 관점에서 훌륭한 작품들이 많이 나오지만, 세상은 크게 변하지 않는다. 앙드레 지드는 생텍쥐페리의 『야간 비행』의 서문에서 현실 고발에 집착하는 현대 문학의 특성을 이렇게 표현한다.

"오늘의 문학은 이것들을 비난하는 데 너무도 능숙하다. 하지만 자기 초월이란 긴장 상태의 의지로 구해되는 것이다. 바로 여기에 우리가 특별히 필요로 하는 것이 제시되고 있다." — 생텍쥐페리, 『야간 비행(Vol de Nuit)』, 갈리마르, 1931. 4p.

비행사에게 어린 왕자의 사랑은 죽음이라는 장엄한 의식을 통한 자아 자기희생적 간청으로서 스스로 희생하면서 희생당하는 자가 이루는 자기 초월이다. 뱀은 어린 왕자에게 자기희생을 선택하게 한 것인데 그 결과 어린 왕자는 예전의 자아로부터 벗어난다.

어린 왕자와 비행사의 대화 모두는 자신의 본질을 발견하고 자아에 갇힌 자신을 끄집어 내려는 시도로서의 내적 대화이다. 제21장에 답이 있다. 함께 나눈 사랑과 재결합하려면 길들여야 하고, 타인을 만나러 가야하며, 보이는 것 속에 숨어 있거나 혹은 어른들이 금지하는 것을 이해하는 데는 시간이 걸리는 법이다. — 왕무(Wang Mu), 『어린 왕자』에서의 실존적 사유(Le Pensées Existentialistes dans Le Petit Prince)』, Canadian Social Science, Vol. 8, No. 6, 2012, 231-233pp.

내가 아닌 존재(non-moi, 非我)

생텍스는 타인 속에서 자신을 보기 위해 자신에게서 벗어날 줄 알았다. 한 번 자신으로부터 벗어난 그는 다시 자신에게로 되돌아갈 수 없었다. 이렇듯 생텍스의 문학 세계는 우선적으로 자아 상실에 관계되는 노력으로서 고찰되어야 할 것 같다. 그에게 있어서 자기완성은 어린 왕자의 죽음이 그러하듯 '내가 아닌 존재'로서의 완성을 뜻하기 때문이다. 탈자아의 요구가 지향하는 '내가 아닌 존재'는 오늘날 철학과 문학 비평에서 흔히 다루는 나와 다른 타인이 아니다. 문학 예술적 실천은 자기로부터의 이탈을 전제로 하는 사랑에서처럼, 다수와의 관계를 맺어 가는 '영혼의 성스러운 매춘'에서처럼 탈자아의 실천이다. 자신이 군중 속의 예술가로 지칭

한 콩스땅땡 기스(Constantin Guys, 1802~1892)에 대한 언급에서 보들레르가 예술의 흐름을 주도하는 힘의 근거로서 '내가 아닌 존재(non-moi)에 대해 늘 목말라 하는 나'를 제시하였듯이.1)



그림 5 보들레르가 19세기 화가 중 가장 현대적인 화가로 지명한 콩스땅땡 기스

이 표현은 부정적 양상으로 드러나는 시대의 삶과 변증법적 관계를 맺고 있는 긍정적인 나 자신이 이 관계를 극복하기 위해 설정하는 존재를 지칭하는 것도 아니다. 생텍스가 전쟁 발발 전부터 소속 비행사의 관료주의를 부정하고,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는 드골 망명 정부, 나치 점령군, 비시(Vichy) 자치 정부 모두를 부정하듯 '내가 아닌 존재'로서 작가 세계는 부정적 시대의 삶 속에 있다. 생텍스가 문학에 대한 미적 접근의 출발점을 현재 진행 중인 다수의 삶에 두는 까닭은 아마도 탈자아의 목표로 열리는 이 존재가 바로 이 삶 속에서만 물음의 지평으로 제시되고 찾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생텍스는 이 존재에 대한 정의를 내리지도 않는다. 이 존재는 단지 물음만을 낳게 할 따름이다. 시대의 삶은 그 부정적 성격에 의해 이 존재에 대한 물음을 가능케 한다. 이 존재가 마치 한 시대가 이른바 현실이라 부르는 그 드러나는 모습 속에 숨어 있다면, 그런데도 시대가 그 모습을 찾아내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이 존재는 시대의 또 다른 가능성으로만 묻혀 있을 것이다. 외국에서는 다양한 학술 연구서와 수많은 장르의 퍼포먼스를 생산하고 있는 『어린 왕자』가 한국에서 아직 가능성의 존재로 남아 있듯이.

1) 샤를 보들레르, 『현대 생활의 화가(Le Peintre de la vie moderne)』, 갈리마르, 1975, 692p.